

許筠 賦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 양상

— 『海東辭賦』 所載 作品을 중심으로 —

김 진 경*

<目 次>

- | | |
|---------------------|---------------------|
| I. 서론 | 2. 인간 삶의 有限性에 대한 哀傷 |
| II. 작품에 형상화된 주제의 양상 | 3. 仙界에 대한 동경 |
| 1. 세상과의 不和에서 오는 失志 | III. 맺음말 |

<국문 초록>

許筠(1569-1618)은 조선 사회가 임진왜란과 당쟁으로 인해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시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불우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방달한 삶의 태도로 인해 당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의 辭賦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영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許筠 辭賦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서 『海東辭賦』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형상화된 주제를 살피고, 그것을 토대로 許筠의 의식지향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작품들에 형상화된 주제의 양상은 세상과의 不和에서 오는 失志, 有限한 인간 삶에 대한 哀傷, 仙界에 대한 동경 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그가 將相으로서의 삶과 그것과 대척적인 지점에 있는 神仙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yeshanmoon@hanmail.net

이상의 주제들은 騷體賦와 抒情小賦, 그리고 六言 등 다양한 체제 속에 과장됨 없는 뛰어난 표현을 통해 형상화되었다. 아울러 작품 전반적으로 서정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도 그의 賦 작품이 지니는 표현상의 특징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賦 작품에 형상화된 許筠의 思惟가 다른 장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許筠에게는 賦라는 양식 역시 형식적인 저작이 아니라 자신의 정회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매개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賦 작품이 지니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許筠, 海東辭賦, 주제 양상, 將相, 神仙

I. 서론

본고는 蛟山 許筠의 「思舊賦」·「竹樓賦」·「北歸賦」·「東林城賦」·「夢歸賦」 등 『海東辭賦』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賦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살피고, 그것을 토대로 許筠의 의식지향을 재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許筠(1569-1618)은 조선 사회가 임진왜란과 당쟁으로 인해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시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불우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방달한 삶의 태도로 인해 당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았고,¹⁾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제까지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는

1) 『朝鮮王朝實錄』 宣祖 31년 10월 13일 기사에 “許筠은 타고난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모든 서적을 두루 탐독하였으므로 글을 잘하였다. 다만 사람됨이 경망스러워서 볼 만한 것이 없다.[許筠賦性聰慧, 博通群書, 長於詞章. 但爲人輕妄, 無足觀者]”라고 했으니, 당대 그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뛰어난 재능에 대한 인정은 이루어졌으나 그의 인간된 면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다.

국문소설인 「홍길동전」을 비롯하여 다섯 편의 한문소설, 『鶴山樵談』·『惺叟詩話』·『國朝詩刪』 등의 詩話集, 散文, 漢詩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개혁적인 의식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조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²⁾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가 남긴 賦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許筠의 賦 작품은 『海東辭賦』에 다섯 편이나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문학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³⁾ 『惺所覆瓿藁』에 수록되어 있는 11편의 辭賦 작품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를 한 경우,⁴⁾ 「東征賦」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과 「관동별곡」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 안에 담겨진 許筠의 의식을 밝힌 연구,⁵⁾ 許筠이 歸去來를 지향했음을 밝히면서 그의 賦 작품들을 단편적으로 살핀 연구⁶⁾가 있을 뿐이다. 선행 연구 모두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賦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개괄적인 소개에 그치거나 한정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
- 2) 김진세, 「許筠論」, 『한국문학작가론』, 螢雪出版社, 1977, pp.295-312.; 안병학, 「許筠의 詩世界와 自我意識」, 『한국한문학연구』 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pp.43-63.; 김현룡, 「許筠-자존의식과 이상향 추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任周卓, 「許筠論」, 『韓國漢詩作家研究』 8, 태학사, 1995, pp.463-488.; 이이화, 『許筠』, 한길사, 1997.; 金泳, 「蛟山 許筠論」, 『조선후기 한시작가론』, 이회, 1998, pp.87-101.; 李家源, 『許筠의 사상과 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허경진, 『허균평전』, 들베개, 2002.; 강동엽, 「교산 許筠의 꿈과 소설」,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pp.15-171. 許筠의 삶과 문학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몇 편만을 제시한다.
- 3) 『海東辭賦』에는 27명 작자의 총 5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5편 이상의 작품이 수록된 사람은 許筠을 비롯하여 張維, 李敏求 세 사람뿐이다.
- 4) 金星洙, 『韓國 辭賦의 理解』, 국학자료원, 1996.
- 5) 이문규, 「許筠의 東征賦」, 『許筠 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pp.320-349.
- 6) 尹米吉, 「許筠의 歸去來에 대하여」, 『국어교육』 90권, 한국어교육학회, 1995, pp.179-200.

문에 許筠 賦 문학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許筠 辭賦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서 『海東辭賦』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형상화된 주제를 살피고, 그것을 토대로 許筠의 의식지향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海東辭賦』의 선정 기준은 “그 聲調가 조화롭고 단아하여 작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⁷⁾이라는 것 외에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나치게 편찬자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 선집이 지니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양한 체제와 내용의 작품을 수록하여 당대와 후대 문인들에게 辭賦 문학의 전범을 제시하는 교과서 역할을 하였다는 점, 특히 작품의 내용면에서 작자의 眞情을 토로한 작품들을 수록하여 辭賦가 지니는 문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⁸⁾ 이러한 이유에서 許筠의 현전하는 11편의 辭賦 작품 가운데 『海東辭賦』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논의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는 許筠 문학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나아가 이제까지 논의된 그의 의식지향을 검증하는 데에 기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작품에 형상화된 주제의 양상

許筠 賦 작품의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양한 주제의 형상화이다. 같은 시대 다른 작가들에 비해 현전하는 작품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⁹⁾ 세상과의 不和에서 오는 失志의

7) 金錫胄, 『息庵遺稿』 卷8(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 145를 텍스트로 하였다.), 「海東辭賦序」. “遂遍閱東人古今諸家辭賦, 就揀其聲調諧雅, 能不詭於作者之旨者, 爲一帙.”

8) 拙稿, 「『海東辭賦』의 收錄 作品 樣相과 編纂의 志向性」, 『漢字漢文教育』 1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pp.633-634.

9) 허균과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던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辭賦 작품을

情懷, 변화무상하고 有限한 인간 삶에 대한 哀傷,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 절친한 사람들과의 이별에서 오는 애절함 등 다양한 주제가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1. 세상과의 不和에서 오는 失志

許筠은 옛날 영웅들은 장수나 정승이 되지 못하면 신선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將相’과 ‘神仙’을 꼽았다.¹⁰⁾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그에게 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將相으로서의 삶이었던 듯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賦 작품 곳곳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스스로 갈등한 흔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王世貞이 지은 「靜姬賦」를 본떠서 「續靜姬賦」를 지었는데, 모함을 받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왕세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不遇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우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세상에서 곤궁하게 지낸지 오랜 세월이 흘러 마음 맞는 친구가 드물고,¹¹⁾ 재주가 부족하여 주어진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정에서 마침내 쫓겨났으니 이미 세속과는 어긋난 것이므로 차라리 海山에서 소요하려고 하나 도성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더디고 더디며 슬프다고 하였다.¹²⁾ 「北歸賦」는 그러한 許筠의 갈등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험난한 여정에 작자 자신의 인생 역정을 가탁하여 작자의 우울한 정회

남긴 예로는 趙繼韓(1572-1631, 35편), 趙希逸(1575-1638, 30편), 張繼(1587-1634, 17편)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 10) 許筠, 『惺所覆瓿藁』 卷20(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 74를 텍스트로 하였다.), 「與申玄翁」 “古之英雄, 不爲將相, 則爲神仙.”
- 11)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次別知賦寄弔詭石洲二友」 “唉余阨乎世路, 閱星紀之再周, 光擇交而鮮合, 孰嚶鳴之可求.”
- 12)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東征賦」 “嗟負乘而自昧兮, 遂致寇於清朝, 既與世而相違兮, 寧海山之逍遙, 慨余行之遲遲兮, 出國門而東邁.”;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思舊賦」 “余遭世之薄阨兮, 屢躓於名途, 既榮祿之不吾謀兮, 思自放於江湖.”

와 고민을 표출하고 있다.

작품은 내용 전개에 따라 序頭・本文・終結의 세 단락으로 나뉜다.

序頭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행로를 가게 된 상황에서의 작자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였다.¹³⁾ 작자는 파직된 후 남쪽으로 향하며 이 기회에 아예 속세에서 벗어날 것을 꿈꿨다. 그러나 현실은 작자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서 원래 계획했던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었다. 許筠은 40세(1608년)에 충청도 암행어사의 書啓로 公州 牧使에서 파직된 적이 있다. 이 때 그는 가족을 거느리고 扶安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承文院 判校로 복직이 되었다. 작품의 내용 가운데 “아침에 용성을 출발하여, 저녁에야 금강을 건너네.”라는 언급을 참고해 보면 이 작품은 그 때 지어진 것인 듯하다. 이 일에 앞서서 그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파직과 복직을 경험하였기¹⁴⁾ 때문에 비록 복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浮沈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위태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불안감은 길이 문득 막힌 상황에서 앞은 온통 진창일 뿐이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작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음은 추운 겨울날의 고된 여정을 사실적으로 형용하는 가운데 작자의 울울한 감회를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다.

-
- 13) 許筠, 『惺所覆瓿藁』 卷3, 「北歸賦」 “余解組而首路兮, 款俶駕以安之. 嘉南州之炎德兮, 慰逋客之無衣. 世傲睨而莫余顧兮, 吾方遠適而高飛. 跨長離兮驂赤, 吾與羨門遊兮蓬萊. 陟層城兮覲王母, 將宴息兮瑤臺. 嗟俗累之相註兮, 又攀我以北馳. 余豈變心而逐榮兮, 人妬余之蛾眉. 唯物外之莫久居兮, 將寘余於何斯. 道輒闕而行泥兮, 嗟天命之不可期.”
- 14) 1599년(31세)에 황해 도사에서 파직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記注官이 되었고, 1603년(35세)에 司僕寺 正에서 파직되어 금강산을 유람하고 강릉에 머물다가 「東征賦」를 지었다. 1607년(39세)에 三陟 府使가 되어 「思舊賦」와 「竹樓賦」를 짓기도 하였으나 그 해 5월에 불교를 숭신한다는 이유로 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惺所覆瓿藁』 解題(민족문화추진회)를 참고하였다.

말들을 정비하여 성문을 나서서, 겨울날 찬바람 헤치며 가네. 마부는 코 흘리며 춥다 소리치고, 냇물은 얼고 길은 막혔네. 아침에 용성을 출발하여, 저녁에 야 금강을 건너네. 아! 더디고 더딘 이 여정, 그 누가 견디겠는가. 높은 산봉우리 넘으며 두려워 떠는데, 산세 험준하여 하늘이 감춰졌다 드러났다 하네. 검푸른 구름이 해를 가리고, 쏟아지는 눈송이에 대낮에도 어둑어둑 하네. 살갗은 얼어 터져 검게 그을린 듯하고, 말은 몸을 오그리고 자주 넘어지네. 애처롭다 험난한 내 생애, 마음 산란하여 창자 끊어지는구나. 공자는 세상에 道를 전하려다가 허허벌판에서 고생하였고, 陸通은 나라에 법도가 무너지자 미친 척하고 벼슬하지 않았으며, 증자는 해진 신발을 끌면서 商頌을 노래하였고, 丈人是 機心을 잊고 도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네. 성인도 꼭 쓰였던 것은 아니며, 현인도 마찬가지로 원망하랴. 운명에 맡기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진다면, 이 몸 욕되지 않으리라.¹⁵⁾

찬바람을 헤치며 가는 겨울날의 여정은 작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위로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세는 험준하고, 대낮인데도 쏟아지는 눈 때문에 사방은 온통 어둑하기만 하다. 일행은 추위에 살갗이 얼어 터지고, 말들은 몸이 오그라들어 자꾸 쓰러진다. 작자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를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인생 역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심적인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보다 앞서 살다 간 인물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고 道를 행하고자 했던 존재들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는다. 예로부터 성현들 가운데 제 때를 만나지 못하여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므로 작자 역시 지금의 세상 사람들을 굳이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

15) 許筠, 『惺所覆瓿藁』 卷3, 「北歸賦」 “出郭門而儼駢兮, 排玄冬之緒風. 洩僕夫兮呼寒, 川凝澌兮路窮. 朝發龍城兮, 夕濟錦江. 慨此行之遲遲兮, 羌誰適以爲容. 歷穹嶂而凌兢兮, 山蔽虧以巖巖. 雲黝黝以翳日兮, 霰雪淫其晝濛. 坼凍膚以如皸兮, 邊馬踟屣僵. 哀吾生之險艱兮, 情結惛而摧腸. 仲尼曠野兮, 陸通猖狂. 子輿曳履, 丈人抱瓮. 聖不必庸兮, 賢不必用. 此自古而亦然兮, 吾何怨乎今之人. 安天賦以自釋兮, 庶不辱乎吾身.”

기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진다면 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처세관을 밝히고 있다. 난삽한 표현이 아닌 지극히 간명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혹독한 추위 속의 고통스런 여정에 대해 실감 있게 형용하고 있다. 典故 또한 험박한 것이 아니라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서 작자의 뜻이 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重曰’로 시작되는 종결 부분에서는 긴밀하면서도 축급하지 않은 4언을 구사하여 본문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¹⁶⁾ 난새·공작·난초 등이 내침을 당하고, 올빼미와 누린내풀 등이 득세를 한다는 관용적인 비유를 통해 道가 어긋난 어지러운 세태와 그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어리석은 소인들이 득세하여 참소를 일삼는 현실에서 작자는 고민 끝에 결국 세태에 맞춰 살아갈 것을 선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욕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맞춰 살아가겠다는 본문의 마지막 언급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許筠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제도에 반대하였으며, 광해군의 폭정에 항거하기 위하여 서인을 규합하여 반란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참형을 당한 인물이다. 생애에 비추어 볼 때 작품의 문면에 드러난 처세관은 그의 眞情이 아니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추구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려는 그의 의지를 반어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4언에서 8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長短句를 조화롭게 혼용하여 운율의 자유로운 맛을 살린 騷體賦¹⁷⁾이다. 거의 매 구마다 ‘兮·之·

16) 許筠, 『惺所覆瓿藁』 卷3, 「北歸賦」 “重曰, 天地肅殺, 氣閉塞兮. 鸞孔威垂, 竄荊棘兮. 鷓鴣得意, 闌阿閣兮. 斥蘭不薰, 謂蕪芳兮. 顛頤爲妍, 醜毛嬙兮. 智者可卷[一作遠逝], 愚者揚兮. 萋萋日組, 箕以張兮. 鬱悒怵僚, 吾將安往兮. 唯從腐吏, 與世俯仰兮.”

17) 騷體賦는 古賦 가운데 『楚辭』를 모방하면서 賦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古賦는 주로 漢代에 창작된 작품들을 일컫는 것으로 ‘古’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된다. 창작된 시기가 이르다는 것과 對仗과 聲律을 강구하는 俳賦나 律賦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후세에 漢代의 賦를 모방하여 지으

而·以·其' 등의 虛字를 사용하여 문장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賦 양식이 지니는 운율의미를 더하였다. 서사적인 서술과 서정적인 서술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관용적인 비유, 사실적인 묘사, 용이한 典故 등을 활용하여 작자의 고충을 극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2. 인간 삶의 有限性에 대한 哀傷

현실과의 不和로 인해 끊임없이 失意하고 갈등하던 許筠이었기에 그는 紀行 중에도 풍광에 대한 감상보다는 자연에 비해 有限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 「思舊賦」·「竹樓賦」·「東林城賦」는 그러한 哀傷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思舊賦」역시 序文·本文·終結의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序에서는 창작 동기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¹⁸⁾ 許筠은 39세(1607년)에 三陟 부사로 부임하여 가는 길에 강릉을 경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전에 그곳을 왕래하던 때로부터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당

면서 對仗과 聲律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작품들을 모두 ‘古體賦’라 칭한다. 古賦의 구성은 보통 긴 편폭에 序頭, 本文, 終結의 三段으로 되어 있으며, 直敘보다는 問答體 형식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體制면에서 다시 騷體賦와 散體賦[漢大賦], 그리고 小賦로 나뉜다. 散體賦는 古賦를 골간으로 하여 편폭이 길고 규모가 크며 問答을 가설하고 韻文·散文을 섞었으며 散文의 맛이 농후한 賦이다. 小賦는 전편에 押韻을 한 韻文으로 4언을 위주로 하면서 3언·6언·7언을 섞어 사용한다. 이것은 그 내용에 따라 한 가지 사물을 노래한 詠物小賦와 抒情·言志에 주안점을 둔 抒情小賦로 나뉜다. (陳必祥지음·沈慶昊 옮김, 『한문문체론』, 1995, p.347.)

- 18) 許筠, 『惺所覆瓿藁』卷3, 「思舊賦」“丁未歲四月, 余赴眞珠, 路由溟州, 耆舊多凋喪, 而州經大水, 邑里寥落, 無復昔日繁華之賞矣, 到梅軒, 芍藥依舊滿院, 而悄無人焉, 感時傷事, 不覺潸然, 噫, 自余來往于茲, 今十六年矣, 當時鄉老皆無恙, 讎集過從無虛夕, 酒賦淋漓, 以酬勝踐, 迨周星, 已同壘圉之觀, 今則餘者落落晨星矣, 俯仰宇宙, 人生幾何, 吾亦早衰多疾, 居此世亦無幾何, 後之弔今, 如今之弔昔也, 豈不悲哉, 古人有一死生齊彭殤之語, 其亦抑哀而自寬者也, 遂抽思而爲之賦, 是向子山陽之感也已.”

시 노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변화한 옛날의 경치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고을이 큰 홍수를 겪고 나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앞에 그는 슬픔을 가누기 어려웠다. 그를 서글프게 한 것은 무엇보다 이 우주에 비해 지극히 한정된 인간의 수명, 곧 자신 삶의 유한성과 그로 인해 지금 자신이 느끼는 비애를 뒤에 올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옛사람의 ‘죽음과 삶을 동일시하고 장수와 단명을 같이 취급한다.’는 말을 위안삼아 스스로 슬픔을 억누르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쯔의 向秀가 옛날에 살던 山陽을 지나가다 때마침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듣고서 지난날 嵇康·呂安 등과 즐겁게 노닐던 일을 생각하고 지었다는 「思舊賦」에 착안하여 賦를 지어 자신의 슬픔을 토로한 것이다.

애통해라 민생들 복이 없으니, 옥황상제께서 재앙을 자주 내렸구나. 陽侯 대단히 노하여, 대륙을 큰 파도로 밀어붙였구나. 단단하고 큰 제방 무너뜨리며, 드높은 언덕 깎아내렸네. 노인과 어린이 급류에 휩쓸려, 깊은 굴속 상어와 악어 밥이 되었네. 즐비했던 성곽 가 수많은 집, 지금은 침몰되어 강물이 되었구나. 의아해라 새로 전란을 겪었는가, 혹은 滄桑의 변화를 겪었던 말인가. 아 혹독한 벌 어찌하여 이곳만 받았는가, 내 장차 主宰者를 탓하리라.¹⁹⁾

긴 여정 끝에 설레는 마음으로 강릉에 도착하였으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치 전란을 겪은 듯 水魔가 활고 지나간 참상뿐이다. 桑田碧海처럼 극심하게 변화한 고을의 모습에 작자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고을의 참담한 실상을 찡찡하게 묘사하고 있다. 견고했던 제방은 무너졌고 높은 언덕은 깎여 내려앉았으며, 노약자들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즐비했던 인가들은 거의 침몰된 참혹한 실상을 과장하지 않고 눈에 비

19)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思舊賦」 “痛民生之無祿兮, 皇數降其災眚. 憑陽侯之吼怒兮, 襄大陸以洪波. 決金隄而壞巨防兮, 隴岸之崑峨. 驚老稚之隨湍兮, 餌幽窟之鮫鼉. 櫛千家之傍郭兮, 今沈沒而成河.[一作者幾何] 訝新經乎兵火兮, 或滄桑之變改. 唉酷罰之奚偏兮, 吾將臯夫眞宰.”

친 모습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마을은 이미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 옛 사람 누가 있는지 물었다네. 술상 배
풀어 기쁘게 맞이하니, 양반이며 종 뒤섞였네. 내 마음 조금 위안되어, 억지로
기뻐하며 웃음 짓고 배회했다네. 내 걸음 울타리 밖 동쪽으로 돌려, 청헌의 쌍
매 찾아갔다네. 주인 어디 갔는지 물으니, 멀리 학 타고 봉래산에 갔다 하네. 적
막한 정원은 쓸쓸하고, 티끌 같은 세상에서 달을 엿보네. 뜰을 따라 거닐며 이
마음 슬픈데, 섬돌에 아직도 작약 만발했네. 아 사람 자취 이미 흩어지고, 푸른
이끼 어느새 누각에 자라났네. 지난날 노닐던 이들 적막하여 좇기 어려운데, 말
소리 얼굴 모습 더욱 아득하구나. 일어나 바람 맞으며 스스로 위로하자니, 떨어
지는 내 눈물 흩어지는구나. 비참해라 서성대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데, 해는 어
느덧 서산으로 지는구나. 깊숙한 샘은 목이 메는 듯 흐르지 않고, 나는 새는 북
쪽 숲에서 우짖네. 근심 풀고자 휘파람 길게 불어보는데, 쓸쓸하고 거친 소리
음률에 맞지 않네.²⁰⁾

主宰者를 닮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옛날 노닐던 곳을
배회해 보지만 함께 노닐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섬돌에는 작약이 만발
하고 누각에는 이끼만 무성할 뿐이다. 예전에는 마을 늙은이들이 모두
별탈이 없어서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과 노래가 질펀하였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자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작자는 결국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에 주저하며 차마 떠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서산으
로 지는 해, 흐르지 않는 샘물, 처량한 새 울음소리 등이 한 데 어우러져
서 작자의 슬픔을 배가시키고 있다. 작자는 음률에 맞지 않는 거칠고 쓸
쓸한 휘파람 소리 속에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20)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思舊賦」 “既閭落之半無存兮, 問故人之疇在. 陳壺
觴而忻迎兮, 雜冠綏與臺隸. 稍慰余之中情兮, 強驩笑而徘徊. 蹤余履乎墻東兮,
訪清軒之雙梅. 問主人之焉如兮, 邈笙鶴於蓬萊. 悄庭院之寥寥兮, 窺桂宇兮塵
埃. 步循除而懷惻兮, 尙階翻夫紅藥. 嗟簪履之已散兮, 奄綠苔兮生閣. 舊遊闌
其難追兮, 音容又以冥漠. 超臨風而自弔兮, 換余涕之迸落. 慘彷徨而不忍去兮,
白日忽其西沈. 幽泉咽而不流兮, 翔鳥噀乎北林. 欲舒悵而永嘯兮, 聲淒厲兮不
成音.”

슬프다! 세상에 처한 인생, 고개 한 번 쳐들고 숙이는 사이 예와 이제로세. 가는 세월이 이 같음을 보고서, 이 몸 오래가기 어려움을 알았다네. 낮과 밤이 어지러이 뒤바뀌니, 누가 왕자교와 적송자처럼 장수를 누릴 수 있겠는가? 내 몸 어루만지며 스스로 서러워하니, 진실로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어찌 위험을 무릅쓰고 名利 따르며, 탐욕스런 사람들과 함께 썩어가라? 저 아름다운 海山에서 소요하며 남은 생을 보내리. 왕의 교령이 들이닥칠 것 기다리지 않고, 「귀거래」편을 본떠서 지어볼까 하네. 타고난 수명 다 마치고 자연스레 죽는다면, 그런대로 권력 탐하는 것보다 나오리.²¹⁾

극도의 슬픔을 느끼던 작자가 인간 삶의 有限性을 인정하고 道家的 사유에 근거하여 자신이 지향할 바를 제시한 부분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고 또 나만의 소유인 것도 없으므로 무한한 장수를 누렸다는 전설상의 王子喬와 赤松子처럼은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名利를 얻기 위해 험난함을 무릅쓰고 탐욕스런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기보다는 남은 생을 소요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晉의 陶淵明처럼 벼슬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어진 命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許筠에게는 결국 생각에 그치는 것일 뿐임을 아래의 종결 부분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울적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오니, 객사는 고요하고 잠은 오지 않네. 달은 살며시 휘장 옆보고, 등불은 희미하게 벽을 향하네. 온갖 생각 창자 속에 모여들자, 불현듯 산양에서 들었다는 피리소리가 떠오르네. 거문고 주고 곡조 타라 명하고, 처량한 내 한을 그 소리에 쏟네. 금휘 소리에 젖어 새벽에 이르니, 서글퍼라

21)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思舊賦」 “哀人生之處世兮, 一俯仰而古今. 覽逝者之如斯兮, 識此身之難久. 紛陰陽之代謝兮, 孰喬松之遐壽. 撫身軀而自悼兮, 固非吾之長有. 奚觸險而循利兮, 竝貪夫而同朽. 唯海山之清絕兮, 佇逍遙乎殘年. 不待督郵之來侵兮, 擬著夫歸去之篇. 終天命而任化兮, 庶或賢乎貪權.”

동녘 이미 밝았네.²²⁾

「歸去來」를 짓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보기도 하였으나 객사로 돌아온 작자는 서글픈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처럼 작자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가슴 속에 가득 찬 서글픔과 恨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작품 전반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한 슬픔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유한하면서 변화무상한 인간의 삶에 대한 哀傷 속에 현실과의 不調和에서 오는 작자의 갈등이 혼재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이 작품은 어려운 典故, 까다로운 對偶, 난해한 어휘 등 특별한 수사 기교의 사용 없이 작자의 情懷를 토로한 抒情性이 강한 騷體賦임을 알 수 있다. 시의 형식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아 내기에 부족하고, 산문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표출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결국 半詩半文의 형식을 택하여 표현한 것이다. 6언과 7언을 위주로 하고 出句에 규칙적으로 ‘兮’자를 반복하여 문장의 리듬감을 증대시켰다. 특히 작품 전체에 걸친 ‘兮’자의 사용을 통해 작자의 깊은 고뇌와 슬픔을 더욱 효과적으로 펼쳐내고 있다.²³⁾ 아울러 각 구의 네 번째 글자는 주로 ‘之·而·以·乎·夫·其’ 등의 虛字를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긴장과 이완으로 문장에 변화를 주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隔句 押韻을 하고 자주 換韻함으로써 더욱 변화 있는 음악성을

22)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思舊賦」 “情紆鬱而還反兮, 僑舍寂其無眠. 月幽幽以瞰帷兮, 燈翳然而向壁. 羌百感之集腸兮, 悅山陽之聞笛. 援雅琴而命操兮, 寫余恨之蕭緘. 霑金徽而至曙兮, 悵東方之既白.”

23) ‘兮’자는 한 구의 중간 혹은 끝에 사용되어 語氣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거나 정감을 펼쳐내는 작용을 한다.(王海萊外 著, 『古漢語虛詞詞典』, 北京大學出版社, 1996. p.360. 참고.) 서복관(『西漢文學論略』, 『中國文學論集』, 臺灣學生書局, 1974, p.358.)은 ‘兮’자로 표현하는 감정은 더욱 처량하고 침울하거나 혹은 격앙되고 비분강개하여 英雄志士들의 답답함과 불만을 쏟아버리게 한다고 하였다.

발휘하여 운율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許筠은 삼척 부사로 부임해 있을 때 죽서루에 올랐다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감회를 또다시 토로한다. 이 때 지은 작품이 「竹樓賦」이다. 이 작품은 4언과 6언을 주로 사용하되 3언·5언·7언 등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전편에 걸쳐 押韻을 한 抒情小賦이다.²⁴⁾ ‘蓋’·‘亦’·‘少焉’·‘於是’ 등 산문에서 쓰이는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의 자연스런 호흡을 담고 있다.

슬프구나, 흐르는 세월은 잃기 쉬우니 흐르는 냇물의 부서지는 물결 같구나. 세상사에 얽히어 인생을 재촉하니, 아! 젊은 시절 얼마나 되는가. 새것과 옛것이 교체되는 일 반드시 이를 것 생각하니, 내일이 많지 않음을 알겠구나. 어찌하여 술잔 대하고 마시지 않으랴, 마음 달래며 소리 높여 노래 부르리. 노래하기를, “뚝소 소리 애절하니 이슬 기운 맺히고, 술잔 가득 차니 좋은 밤 한창이로다. 덧없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어찌하여 즐기지 않고 길게 한탄하리오.” 노래 마치고 탄식하니, 온 좌석 고요하구나. 난간에 기대어 쓸쓸히 바라보니, 높은 하늘에 달이 떠있네.²⁵⁾

작자는 공무를 보는 여가에 죽서루에 올라가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
- 24) 許筠, 『惺所覆瓿藁』 卷3, 「竹樓賦」 “歲在丁未, 余宰直州, 公餘攬勝, 竹西之樓, 矚頭陀之萬丈兮, 臨五十之瓊流, 遡長風而永嘯兮, 聊以舒夫離憂, 日旣晚以向夕兮, 羌欲去而少留, 于時春物尚餘, 夏景初麗, 雜花映欄, 濃陰覆砌, 回廊闌以無人兮, 鳥語媚其新霽, 山翠滴兮霏霏, 竹煙生兮細細, 余乃披雪氈, 岸華陽, 手玉塵, 偃匡床, 俯庭除之喬林, 凝畫戟之清香, 蓋三子之同調兮, 亦相隨而徜徉, 於是命膳夫促華饌, 旨醴登, 嘉鮪薦, 匏笙梓, 瑟雜奏, 徵變, 揚子夜之新聲, 引結風之初轉, 以窮驩而自虞兮, 忘此身之異縣, 少焉娥暉未舒, 桂燭高燒, 夜色澄涼, 波光沈澹, 銀河耿兮瑤蕓, 玉繩低兮琳霄, 拳珠箔而容與兮, 指蓬島之非遙, 超逸興之遄飛兮, 覺浮丘之可招, 爾其衆賓既醉, 樂事方極, 諧唱未弭, 我懷以惻.”
- 25) 許筠, 『惺所覆瓿藁』 卷3, 「竹樓賦」 “悲流光之易失兮, 若逝川之頽波, 世故糾而催人兮, 嗟少壯之幾何, 念代謝之必至兮, 知來日之無多, 奚臨觴而不御, 願抒情而高歌, 歌曰, 紫簫咽兮露氣溥, 金壺滿兮芳夜闌, 浮生兮若寄, 胡不樂兮永嘆, 歌竟以吁, 四座寂然, 憑欄悵望, 月在高天.”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흥이 절정에 이르자 작자는 오히려 가슴 속에서 서글픔이 밀려옴을 느끼고 감상에 젖게 된다. 그 슬픔의 원인은 바로 인간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흐르는 세월은 부서지는 물결처럼 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니 인생사에 얽매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잊고 이 순간을 애써 즐기려고 노력해보지만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작자를 괴롭힌다. 이 작품이 「思舊賦」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을 고려해보면 여기에서의 잦아들지 않는 슬픔도 단지 인생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닌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실에서 將相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작자에게 유한한 인생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더욱 절박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東林城賦」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변화무상한 인간 삶에 대한 哀傷의 정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은 동림성 옛터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동림성에 얽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술회, 懷古를 통한 작자의 비애의 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레를 서쪽으로 내달려 東林의 옛 성으로 향했다네. 성가퀴는 헐려 모두 없어졌고, 이겨 불인 흙도 쏟아져 절반이 무너졌구나. 둘러보니 성곽 위의 높은 望樓는 어디로 갔는가? 보이는 것은 우거진 숲과 소태나무 뿐. 깨진 초석들 묵은 풀 속에 널려 있고, 대관의 남은 터만 여전하구나. 놀란 사슴과 다투는 날다람쥐들 어지러이 우거진 나무에 의지하여 제 마음대로 일세. 하늘 닿은 숲 으스스하여 대낮에도 어둡고, 온갖 도깨비 우는 소리.²⁶⁾

폐허가 된 東林城 옛터의 모습을 편집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그 곳의 경광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하다. 성곽 자체의 형태는 온 데 간 데 없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옛 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게다가 주위는

26)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東林城賦」 “馳驂駢以西邁, 指東林之故壘, 女墻毀而盡夷, 糊壤頽乎半圯, 眷麗譙之何歸, 蔚滿目之蓬杞, 破礎橫於宿莽, 尙臺館之餘址, 紛驚麀與鬪鼯, 依叢灌而自恣, 穹林幽而晝晦, 嘯山魃與木魅.”

온통 짐승들 천지이고,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아 으스스하기 이를 데 없다.

내 천천히 배회하며 어느 시대의 성터인가 물었다네. 촌로가 옛 말 전해 주길, “이 성은 고구려가 만든 것인데,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평양으로부터 도읍을 옮겼다. 삼엄하게 겹문 설치하고 야경을 돌며, 성의 규모 견고하고 우뚝 했는데, 겨우 백 년 만에 서울 옮겨가고, 서쪽 변방의 거대한 진영으로 만들었다. 여진족의 침입을 당하여, 애통하게도 張·許 장군이 함께 죽으니, 산꼭대기에 항불 받들어, 백성들 여전히 그 절의에 감복한다. 지금까지 재앙과 복을 내리시니, 생각건대 굳센 혼백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리라. 고을의 감영 남쪽으로 옮기게 되자, 성을 비로소 고려 말에 폐했지만, 사람들 이 곳을 사랑하여 그대로 살아가니, 마을에 뽕나무와 삼이 울창했다. 그러던 중에 전염병이 돌아 모두 떠나고, 나처럼 늙은이 한 두 사람만 남았다.”하네.²⁷⁾

東林城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산증인인 한 촌로의 입을 통해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까지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이야기 전개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東林城이 구축된 것으로부터 폐허가 되기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과장됨 없이 순차적,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홍망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노인이 길게 탄식하는데, 나그네 더욱 느낀 점 있었네. 저 遷都와 도적에 항거한 사실, 마땅히 믿을만한 역사책에 증거 있어야 하건만 모두 실전되어 들을 수 없으니, 이 노인 아니었다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훌륭한 자취가 매몰됨을 개탄하노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일들 모두 이럴 것이라네. 문헌이 손실되어 잊혀지니, 후세에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할까? 비록 한 때 영화롭더라도 그것을 백 년 동안 유지하기 어려움을 알겠네. 몸과 이름

27)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東林城賦」 “弭余節而徘徊, 問何代之朝市, 野老傳其舊諺, 是經營乎高氏, 防胡馬之豕突, 自平壤而來徙, 嚴重門而擊柝, 制克固而不庫, [一作移] 纔百年而還京, 作鉅鎮於西鄙, 當完顏之來侵, 惜張許之俱死, 奉香火於山巔, 民猶服其徇義, 降災戾之至今, 想毅魂猶未沫, 逮郡治之南遷, 城始廢於麗季, 人戀土而仍居, 鬱桑麻於邑里, 中遭癘而盡移, 餘我老之一二.”

함께 씌울 것임을 알았으니, 또 어찌 저 榮華와 利欲에 연연해하겠는가? 내 마음 서글퍼 머뭇거리며, 고급의 법칙 한 가지임을 깨닫네. 아득한 하늘에 검은 구름 드리우고, 회오리바람 세차게 몰아치네. 산은 우뚝 솟아 하늘을 가렸고, 해는 이미 저물었구나. 한탄스러워 서성대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내 이 슬픈 한 편의 뇌문에 붙여보노라.²⁸⁾

노인을 통해 東林城의 盛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듣고 난 뒤 작자는 모든 인간사는 흥망성쇠가 반복되기 마련임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깨닫는다. 마땅히 역사서에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되고 기억되어야 할 사실들조차도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니 한 평생을 살면서 굳이 榮華와 利欲을 좇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古수를 관통하는 진리라는 사실에 작자는 허망함과 슬픔을 느낄 뿐이다. 세차게 몰아치는 회오리바람, 아득한 하늘에 잔뜩 낀 검은 구름,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진 산, 뉘엿뉘엿 지는 해 등이 「思舊賦」에서처럼 작자의 슬픔을 형상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체가 6언으로 이루어진 科賦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주제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科賦들과는 변별되는 점이 있다. 科賦는 주로 經書의 유명한 구절,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사실이나 유명한 옛 시문의 한 구절을 주제로 삼아 1구6언으로 30구에서 60구까지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압운도 없고 각 구 제3언 다음에 대개 ‘以·於·之·其·與·兮·乎’ 등의 虛字를 써서 句의 호흡을 조절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道學的 治教에 관한 說理性이 강한 것이다.²⁹⁾ 그러나 許筠의 이 작품은 폐허가 된 옛 성터를 소재로 하여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그 모든

28) 許筠, 『惺所覆瓿藁』 卷3, 「東林城賦」 “話興替而浩歎, 尤有感於行子, 唯遷都與抗賊, 宜有徵於信史, 竝失傳而無聞, 微此老則誰識, 晉志 慨賢迹之埋沒, 不著世者皆是, 文獻缺而寢忘, 後疇記其姓字, 縱一時之芬芳, 知百年之難持, 諒身名之同朽, 又奚戀夫榮利. 愴余懷而踟躕, 覺古今之同揆, 天潭潭而雲黑, 炎朔颯之怒起, 山嶽岑而隱天, 日已迫於濛汜, 悵盤桓而不忍去, 寄余哀於一詠.”

29) 이러한 科賦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학 형태로서 16세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것의 有限性에 대한 哀傷을 형상화하고 있다. 「思舊賦」에서는 세상과의 불화에서 오는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역사의 무상함에 대한 슬픔을 보다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난삽한 전고와 어려운 글자의 사용 없이 사실적인 이야기 전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립성 옛터에서 이루어진 노인과의 대화는 작품을 통해 許筠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곧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작자의 슬픔의 근거를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작자의 감회를 서술하는 가운데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대사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主旨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대화체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3. 仙界에 대한 동경

조선 전기 辭賦 작품에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道家的 사유를 근간으로 하는 遊仙, 求仙³⁰⁾의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³¹⁾ 이 시기에 이러한 성향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창작된 것은 무엇보다 士禍 등으로 인한 정치 사회의 혼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辭賦의 창작 주체는 사대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사회의 혼란이 辭賦의 내용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政爭의 상황에서 失志한 사대부들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또 다른 이상향을 꿈꾸거나 우울한 情懷를 토로할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性理學 이념이 지배적이었던 이 시기에 道家的 思惟가

30) 古代 道家的 方士들이 많이 제창한 것으로 服藥, 修煉 등의 방법으로 長生 不老를 구하는 것을 이른다.

31) 고려시대와 17세기 후반 이후에 창작된 작품 가운데에는 이러한 성격의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고려시대 작품 중에는 이인로의 「和歸去來辭」에서 莊子의 사유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농후한 遊仙 계열의 辭賦 작품의 창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곧 당면한 현실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道家的 사유를 통해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현실의 한계와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러한 극복 의지가 더욱 환상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계열의 작품들은 이 시기 사대부들의 道家的 소양의 수준과 政爭 속에서의 지식인의 의식지향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작품들³²⁾은 대부분 ‘夢遊’의 서사 구조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작품이 俗塵을 벗어나 仙境에서 노닐며 仙人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고뇌를 토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작품에서 그려지는 仙界는 매우 구체적이고 화려하며, 道家的 傳說과 神話를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과장법을 주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과의 議論的 대화를 통해 도가적 이치를 밝히고 주제를 전달한다. 이것에 비해 고려시대 창작된 작품 중에 李奎報의 「夢悲賦」와 李崇仁의 「哀秋夕辭」는 夢遊의 서사 구조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仙界의 묘사가 없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에 창작된 작품들과는 다르다. 許筠의 「夢歸賦」도 夢遊의 서사 구조로 이루어졌으나 仙界의 묘사가 없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에 창작된 夢遊類 辭賦 작품들과 다르며, 오히려 이규보의 「夢悲賦」의 서사구조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은 入夢 - 夢中 - 覺夢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思舊賦」처럼 6언과 7언을 위주로 하고 ‘兮’자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운율미를 살린 騷體賦이다.

32)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兪好仁의 「夢遊靑鶴洞辭」, 蔡壽의 「獨鶴賦」, 南孝溫의 「大椿賦」·「藥壺賦」·「哀人生賦」·「得至樂賦」, 朴祥의 「夢遊」, 沈義의 「廣寒殿賦」·「山木自寇賦」·「蟠桃賦」·「大觀賦」, 成倪의 「石假山賦」·「遊三日浦賦」·「涸轍鮒賦」·「萬景臺觀海濤賦」·「華表柱賦」, 申光漢의 「病鶴賦」, 李苻의 「登瀛洲」, 李珥의 「空中樓閣賦」·「遊伽倻山賦」, 許筠의 「夢遊鍊光亭賦」·「毀壁辭」, 趙希逸의 「瑤池宴賦」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작품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정민의 글(「朝鮮 前期 遊仙辭賦 研究」, 『한양어문연구』 14, 한양대 어문연구회, 1996, pp.909-913.)이 참고가 된다.

入夢 단계에서는 머나먼 변방으로 내쫓겨 산에 갇힌 작자가 도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내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³³⁾ 참담한 마음에 하룻밤이 마치 일 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쓸쓸하여 잠을 이룰 수 없던 작자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하자 곧 꿈에 빠져들게 된다.

갑자기 몸 두고 정신만이 위로 올라가, 광활한 허공 날아 거리낌 없네. 우주 의 원기 홀겨보며, 아스라한 창공 가르며 솟구치는구나. 도대체 무엇이 나를 멀리 가게 하는가? 회오리바람 타고 가로질러 난다네. 혜성 따라 치달리니, 시커먼 구름이 밑에 깔렸구나. 하늘 끝까지 뚫고 높이 날아올라, 서북쪽을 바라보며 곧바로 지나가네. 연기 피어나 휩싸인 것도 아닌데, 희미한 안개 자욱함에 놀라네. 어지러운 속세 내려다보니, 얽히고설킨 모습 희미하여 상상해보네. 이미 은하수조차 찾을 수 없는데, 도성이며 큰 길 어찌 분별하리오. 높이 홀로 서서 머뭇거리며, 서글피라 끝없이 곱씹어보네. 내 집 찾느라고 정신을 집중하여, 혼이 내려가 선회하는구나. 남산의 비탈길을 따라, 내 발걸음대로 머뭇거리며 가네. 궁궐을 등지고 사립문을 향하는데, 시야는 캄캄하고 길은 끝이 없네. 울타리 넘어 어졌고 잡초는 무성하며, 늘어진 버들가지 꺾였고 버려진 연못 메워졌네. 산은 굽이져 집을 감싸 안고, 도량물 줄줄 샘으로 흘러 쏟아지는구나. 형님 대하고 울분을 호소하니, 가슴에서 솟구치는 눈물 줄줄 흐르네. 보이는 것은 확확 지나가고 들리는 것은 황망하니, 어리석은 혼 의탁할 곳 없다네. 남쪽으로 내 갈길 돌이키니, 정신 불안하여 허전하구나.³⁴⁾

33) 許筠, 『惺所覆瓿藁』卷3, 「夢歸賦」 “竄遐荒而囚山兮, 邈不夫舊都, 胡魂夢之往往兮, 每歸翔乎。夜櫓寂而若歲兮, 惕寤念之瞿瞿, 強就枕而假睡兮, 宴余體以自舒, 潛神定而識情兮, 怫微息之駒駒。”

34) 許筠, 『惺所覆瓿藁』卷3, 「夢歸賦」 “欸精氣之上騰兮, 狂汎濂而無拘, 倪宇宙之一氣兮, 劃杳茫而炎舉, 夫孰馭余以遐征兮, 躡回風其橫翥, 撫彗星而駸驅兮, 雲黯黯而下布, 貫倒景以高厲兮, 瞻西北而經渡, 非煙滓以繚繞兮, 驚霧氤其容與, 頽塵寓之眩眩兮, 隄膠葛而想像, 既華漢之不可求兮, 夫豈辨帝里與遠路, 表獨立余僮徊兮, 悵曼衍而循咀, 眺弊宇而精注兮, 魂抑降而回旋, 遵終南之垠堦兮, 按余步之跼跼, 背南宮而指蓬藿兮, 謎奄藹而綿聯, 藩垣頽挫兮, 荊艾蔚芊, 折楊摧絮兮廢沼游填, 山紆軫而擁樞兮, 溝咽咽而寫泉, 對伯氏而訴憤兮, 涕交臆之漣漣, 視儻忽而聽怳兮, 魂怡儼而無所托, 返余路於南微兮, 神棲遑而

꿈속에서의 여정을 서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仙界에 대한 과장되고 허황된 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자가 꿈속에서 만나는 대상 역시 仙人이나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작자의 형이라는 점이 독창적이다. 꿈속의 혼이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어둡다. 끝이 없는 아득한 길, 넘어져 있는 울타리, 축 늘어져 꺾어버린 버들가지, 물 없이 메워져버린 우물 등은 모두 암담하고 쇠락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참담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작자는 꿈속에서도 내내 서글프고 괴로울 뿐이다. 그 이유는 꿈속에서의 여정을 통해 현실 삶에서의 자신의恨과 근심을 해소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소연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득 혼 생동하여 밝아지니, 내 잠을 깨고 두려움에 놀라네. 멀고 험한 길 뛰 어넘어 지척 같으니, 궁궐 까마득히 멀다 말하지 마오. 이 유람 또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니, 정신 진정 향한다면 반드시 도착하리라. 만일 밤마다 돌아간다면, 무엇 때문에 갇힌 신세 한하겠는가?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은 꿈과 같아서 내 몸 천지간에 두었으나 또한 땅[地]·물[水]·불[火]·바람[風] 등 네 가지의 요소가 임시로 합친 것이니, 어찌 저 고향의 마을을 그리워하랴. 오직 달관한 至人만은 천지를 주막집보다 작게 여겨서 일찌감치 몸을 일으켜 멀리 떠나, 매우 광활하고 구석진 변방에서 머무네. 파리가 모여 있는 웅덩이를 굽어보니, 답답하여 오래 머물 수 없음을 알겠네. 저 芝城과 縣圃, 내 마음 이곳에 노닐기를 소원하네. 선인의 불사약 구한 다음, 마침내 단구에서 멍에 벗기리.³⁵⁾

壙廓.”

- 35) 許筠, 『惺所覆瓿藁』 卷3, 「夢歸賦」 “春魂動而就朗兮, 懷余覺而怔愕, 超脩阻其如咫兮, 罔曰禁城之眇莫, 茲游之亦可再兮, 固神嚮則必著, 倘夜夜之輒歸兮, 曾何恨夫籠鑰, 人生處世之如夢兮, 客我軀於寰區, 亦四大之假合兮, 奚戀夫故邑之田間, 唯至人之達觀兮, 小天地於蓬廬, 曾舉以遠逝兮, 絕廣莫而淑郵, 俯謁聚之瀦閭兮, 知鬱鬱其不可久留, 彼芝成及縣圃兮, 寔余心之願游, 求仙人之不死藥兮, 終稅駕於丹丘.”

覺夢 후 작자는 꿈속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면 현실 삶에서의 구속과 갈등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道家的 사유에 근거하여 신선세계를 希求하고 있다. 至人, 芝城, 縣圃, 仙人의 不死藥, 丹丘 등은 모두 道家的 성격의 소재로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부조리한 정치 현실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節義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고뇌하였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현실에서의 갈등과 삶의 有限性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이상 세계를 꿈꾸었을 것이며, 그러한 바람이 이처럼 문학 작품을 통해 仙界에 대한 동경으로 형상화되었을 것이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許筠 賦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작품에 형상화된 주제의 다양성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海東辭賦』 소재 다섯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안에 형상화된 주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상과의 不和에서 오는 失志, 有限한 인간 삶에 대한 哀傷, 仙界에 대한 동경 등으로 주제의 양상을 분류할 수 있었다. 한 작품 안에 세 가지 양상이 혼재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면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許筠이 賦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思惟는 현실세계와의 끊임없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갈등이 세 가지 양상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는 騷體賦, 抒情小賦, 六言 등 다양한 체제를 구사하고 있었으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매우 꾀진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아울러 작품 전반적으로 서정성이 매우 농후

하다는 것도 그의 賦가 지니는 표현상의 특징이었다. 이 점은 金錫胄가 『海東辭賦』를 편찬하면서 견지했던 지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賦 작품에 형상화된 許筠의 思惟가 다른 장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許筠에게는 賦라는 양식 역시 형식적인 저작이 아니라 자신의 정회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매개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賦 작품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본고에서 제외된 여타 작품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許筠 辭賦문학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金錫胄 編, 『海東辭賦』, 太學社, 1991.

金錫胄, 『息庵遺稿』, 『韓國文集叢刊』 145, 民族文化推進會.

許筠, 『惺所覆瓿藁』, 『韓國文集叢刊』 74, 民族文化推進會.

『朝鮮王朝實錄』 宣祖 31년.

강동엽, 「교산 許筠의 꿈과 소설」,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金星洙, 『韓國 辭賦의 理解』, 국학자료원, 1996.

金 泳, 「蛟山 許筠論」, 『조선후기 한시작가론』, 이회, 1998.

김진세, 「許筠論」, 『한국문학작가론』, 螢雪出版社, 1977.

김진경, 「《海東辭賦》의 收錄 作品 樣相과 編纂의 志向性」, 『漢字漢文教育』 1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김현룡, 『許筠-자존의식과 이상향 추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안병학, 「許筠의 詩世界와 自我意識」, 『한국한문학회연구』 5집, 한국한문학회, 1980.

尹米吉, 「許筠의 歸去來에 대하여」, 『국어교육』 90권, 한국어교육학회, 1995.

李家源, 『許筠의 사상과 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이문규, 『許筠 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이이화, 『許筠』, 한길사, 1997.

任周卓, 「許筠論」, 『韓國漢詩作家研究』 8, 대학사, 1995.

鄭 珉, 「朝鮮 前期 遊仙辭賦 研究」, 『한양어문연구』 14, 한양대 어문연구회, 1996.

陳必祥지음·沈慶昊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서복관, 「西漢文學論略」, 『中國文學論集』, 臺灣學生書局, 1974.

王海荃外 著, 『古漢語虛詞詞典』, 北京大學出版社, 1996.

Abstract

*The aspects of the themes expressed in Heo Kyun's Fu works - Focusing on the works listed in 『Hae-Dong Cifu』 / Kim Jin Kyung**

Heo Kyun (1569-1618) lived an unfortunate life during the Joseon dynasty. At that time, the Joseon dynasty was undergoing troubles at home and abroad due to the Imjin war and the party strife. He was evaluated positively as well as negatively because of his superior talent and liberal attitude. Both his literary works and his life have been intriguing subjects of research until now. However, his Cifu works have not received adequate academic attention. Therefore, as a part of the research on Heo Kyun's Cifu literature, this manuscript attempted to examine the expressed themes in his works listed in 『Hae-Dong Cifu』 and to identify Heo Kyun's view of life.

The aspects of the themes expressed in his works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ense of loss because of the discord with the world, sorrow of the limited nature of human life, and longing for the fairy land. These three themes imply his continuous conflicts between the life of a general and prime minister and the life of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These themes are expressed in various styles through the realistic expression without exaggeration. In addition, the strong flavor of lyricism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expression form of his Fu works.

It may be safely concluded that Heo Kyun's thoughts expressed in his Fu work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expressed in his works of other genres. As for Heo Kyun, the Fu style was more than routine writings. It functioned as a medium which can deliver his true emotions through. In this regard, it is

* Lecturer of Korea University / yeshanmoon@hanmail.net

suggested that the important value of Heo Kyun's Fu works should be recognized.

【Key words】 Heo Kyun, Hae-Dong Cifu, themes, general and prime minister,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투고일 : 11월 8일, 심사일 :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